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2월 9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요한복음 1장 12-13절

설교제목 :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구역과 관련해서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룰 주제는 구역으로 인해 주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역이란 무엇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역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대부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정도의 답을 합니다. 성경에서 구역의 사건을 네 가지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의인됨, 화해함,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역의 그림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됨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역받기 이전의 우리의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구역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고,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였으며, 죄악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엡2:1-3) 한마디로 사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요1:12-13)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에서 ‘**되는**’으로 번역된 ‘**기노마이**’는 천지창조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구역이란 새로운 신분의 창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분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신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요1:12)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란 무엇입니까? 권세는 파워 즉 능력의 개념보다는 특권의 개념입니다. 구역이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갈 4:6-7)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란 의미입니다. 구역이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녀입니다. 상속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구역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역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30절을 보면, 탕자 이야기 가운데, 첫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불만은 자기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는데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소 한 번 잡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큰 아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눅15:31**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롬8:32)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역의 복이 무엇입니까? 구역은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구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됨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

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신적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그 분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아들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모릅니다.(눅15:32)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으나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첫째 아들이 결코 아버지와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나, 아버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무관한 삶을 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첫째 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열심히 봉사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마치 교회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신적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개념은 정보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관계와 교제가 전제가 되어 단순한 정보와 지식을 넘은 경험적인 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이 두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말씀 나누어보기

- 1)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데서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2)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3) 누가복음 15:25-32의 탕자의 이야기에서 큰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